

LS일렉트릭, '쿤란' 지분 19% 인수... 中 진출 시동

(중국 3위 PCS 기업)

창저우 쿤란 지분 약 18억에 확보
PCS 핵심부품인 펩, 쿤란에 수출
쿤란에 생산라인 등 투자 추가 단행

LS일렉트릭이 중국의 ESS(에너지 저장장치)용 PCS(전력변환장치) 제조 업체 지분을 확보했다.

LS일렉트릭은 6월 30일 중국 내 3위 PCS 기업 '쿤란'으로부터 PCS 생산 자회사 '창저우 쿤란' 지분 19%를 1052만 위안(약 1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LS일렉트릭이 중국 현지 ESS 시장 진출을 위해 배터리기업 '나라다'와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사업 협력의 일환이다. LS일렉트릭은 쿤란이 보유한 창저우 쿤란 지분을 인수해 현지에서 PCS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

/뉴시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말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지분 인수 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부딪혔지만, 화상회의를 상시 운

영하며 의견을 조율해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용산 LS타

워에서, 나라다 주 바오 이 총재와 쿤란 위 종란 동사장은 LS일렉트릭 상해 법인에서 태블릿 PC에 실시간 서명하는 디지털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PCS 핵심 부품인 PEBB(펩)을 창저우 쿤란으로 수출하고, 창저우 쿤란은 한국산 PEBB으로 제조한 PCS에 나라다 배터리를 탑재한 ESS 완제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PEBB를 국내 최대 수준인 16대 병렬 연결하며 확장성과 안정성, 경제성을 개선한 '모듈러 스케일러블 PCS'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PCS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저우 쿤란에 6억5000만원 규모의 생산라인과 시험설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고, 국내 기술인력도 현지

에 대거 지원해 한국 시장서 유통되는 PCS에 준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편 세계 ESS 시장 규모는 2018년 6.6GW에서 2023년 90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경우 2018년 누계 1.1GW 중 같은 해 신규 설치가 집중(0.7GW) 됐을 정도로 더딘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최근 '뉴 인프라'라는 전략적 정책 발표를 통해 신 에너지와 ESS 보급 확대를 강력 추진하면서 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급성장하는 현지 수요에 발 맞춰 고품질 PCS를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생산, 나라다의 배터리와 결합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수도권에 '스마트 오피스'... 출퇴근 시간 단축

롯데쇼핑HQ, 오늘부터 오피스 도입
롯데백화점 노원점·일산점 등 5곳

롯데쇼핑HQ(본점)가 주 1회 재택근무 시행에 이어 7월 1일 거점 오피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롯데쇼핑HQ는 기획전략본부, 지원본부, 재무총괄본부 등 롯데쇼핑 각 사업부에 포진돼 있던 스태프 인력을 한 데 모은 조직이다. 2020년 1월 신설됐으며 각 사업부는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려됐다.

롯데쇼핑HQ가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는 수도권 일대 5곳이다. 롯데백화점 노원점·일산점·인천터미널점·평촌점과 빅마켓 영등포점(인재개발원)까지 총 5개 거점에 225석을 준비했다. 사용 대상은 롯데쇼핑HQ와 롯데백화점·마트·슈퍼·롭스·e커머스 각 사업부 본사 직원 3000여 명이다. 지점별로 일부 좌석에는 노트북을 비치해 이용 직원의



롯데쇼핑 스마트오피스.

/롯데쇼핑

편의를 도모했다.

스마트 오피스는 자택 인근의 근무공간으로 출근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근무 중 본사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인근 오피스에 들러 남은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장 소통을 강조하는 롯데쇼핑의 근무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여러 사업부 직원들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함께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웹 기반에 좌석 예약시스템이 구비되어 언제 어디서든 5개 거점 오피스의

좌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하다.

롯데쇼핑의 스마트 오피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롯데그룹 차원에서 도입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롯데쇼핑HQ는 백화점·마트·슈퍼·롭스·e커머스 각 사업부 간 업무 시너지를 도모하고 본사와 현장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삼양, 업무환경 혁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전 그룹 확대 검토

삼양홀딩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오피스 365'를 시범 도입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피스365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태블릿, 스마트폰, 개인용 PC 등 기기 종류와 관계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서를 읽고 편집할 수 있다.

삼양그룹은 이번 업무 환경 변화를 통해 제공되는 문서 공동 편집, 화상회의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전 그룹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도입 조직은 삼양사 코스메틱PU, 삼양바이오팜USA 등이다. 삼양사



삼양홀딩스는 시공간 제약 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협업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 365'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삼양그룹

코스메틱PU와 삼양바이오팜USA 모두 사업 특성상 협업과 수평적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코스메틱PU는 삼양사의 소재 과학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 '아바웃미(ABOUT ME)'를 통해 많은 제품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과 차별적 마케팅을 위해 조직 내외부의 소통이 활발하다.

/원은미 기자

대구 전매제한 前 분양 막차... 이달 1만여가구 쏟아진다

2000년 조사 이래 대구 최다 물량
오는 8월 분양단지부터 규제 강화

7월 대구광역시에서만 아파트 1만여가구가 쏟아진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매제한 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 분양 막차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대구광역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16개 단지 1만575가구다. 2000년 조사 이래 대구에서 월별 기준 역대 최다 물량이다.

올해 월별 중 가장 많은 물량이며 지난달(2633가구)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역대 두번째로 공급이 많았던 2007년 5월 6880가구보다도 4000가구

가량 많다.

지역별로는 ▲서구 1개 단지 1678가구 ▲중구 2개 단지 1040가구 ▲동구 6개 단지 4736가구 ▲남구 1개 단지 345가구 ▲달서구 1개 단지 92가구 ▲수성구 5개 단지 2684가구 등이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강화된 규제는 오는 8월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8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예고되면서 건설사별 밀어내기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전매제한 기

한이 6개월이 적용되는 마지막 단지(수성구 제외)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30.15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광풍이 불었다. 이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인 29.4대 1을 뛰어넘은 수치다.

규제 전 막차 주요 분양단지로 반도건설은 대구 서구 평리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서대구역 반도유보라센텀 59~138㎡, 1678가구 중 1226가구를 일 반분양 한다. 단지 인근에 서대구KTX역(예정)이 위치해 있고, 국제보상로와 신천대로, 서대구로, 서대구IC도 가까워 시내의 이동이 편리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5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연 2.81%

1996년 편제 이후 최저치

지난달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저축성 수신금리가 1996년 편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는 보증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했지만 기업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기준 예금 금리는 전월에 비해 0.13%포인트 하락한 연 1.07%를 기록했다.

가계 대출금리도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한 2.81%로 집계됐다. 보증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0.1%포인트, 0.06%포인트씩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하하면서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연동되는 은행채 5

년물은 1.38%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하락했고, 코픽스 금리도 0.06%를 기록해 0.14%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가계대출금리 하락세에도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평균 금리는 연 2.82%로 올랐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2.83%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2.75%로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저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달(17.6%)에서 15.4%로 축소되면서 0.02%포인트 오른 2.88%를 나타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에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에 대한 조정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흐름을 두고 봤을 때 기업대출 금리 하락 폭이 가계대출 금리보다 상당히 더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